

# '지금 이 순간, 난 가장 건강하다'

암·시한부 등 신파로 이어질 수 있는 설정 유쾌하게 다룬 JTBC 새 금토드라마 '판타스틱'... 내일 첫 방송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남은 생이 6개월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도 슬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JTBC 새 금토드라마 '판타스틱'(극본 이성은·연출 조남국)의 '이소혜(김현주)처럼 말이다.

"저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요. 그냥 실감이 나지 않고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시한부' 이소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점점 증상이 나타날 테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게 들어가게 되겠죠"(김현주)

'판타스틱'의 '이소혜'는 '갯소혜'로 불리는 인기 드라마 작가다

평생 방에 틀어박혀 글만 쓰고 살았는데 6개월 남은 암 환자가 됐다

당장 드는 생각은 후회뿐이다.

"글 한 줄 덜 쓰고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 볼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모리스 컨벤션에서 열린 JTBC 새 금토드라마 '판타스틱' 제작발표회에서 (왼쪽부터)배우 김태훈, 김현주, 주상욱, 박시연, 지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드라마는 암 환자 시한부 등 신파로 이어질 수 있는 설정을 유쾌하고 씩씩하게 다룬다

드라마 카피처럼 '지금 이 순간 난 가장 건강하다'는 마음으로 튼튼한 멘탈의 소유자 이소혜답게, 억울해 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모든 걸 집어 던지고 여행지로 떠나 짜릿한 로맨스를 즐기다 우유니 사무실에서 홀연히 사라질 계획을 세우는 식이다

정극과 코미디를 오가는 드라마를 설득하는 건 김현주의 연기력이다.

앞선 작품 '애인 있어요'에서 1인 2역까

지도 훌륭하게 소화했다. 그녀

죽음을 눈앞에 둔 이소혜 앞에 나타난 남자는 어마어마한 인기의 한류스타지만 연기를 너무나도 못하는 텔런트 류해성(주상욱)이다

12년 전 첫사랑 '이소혜'와 주연배우와 작가로 재회하면서 인연을 이어가지만 그녀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톱스타인데 연기를 못하는 설정이 재밌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제

신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발연기'를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진지하게 보여야 하니까요."(주상욱)

또 다른 남자는 주치의 '홍준기'(김태훈)다. 의사지만 형압제가 듣지 않는 체질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5년째 투병 중인 환자다. 하지만 "누구나 시한부"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소혜'의 결을 지키며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정말 멋진 남자예요. 아픔과 외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완벽한 남자의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김태훈)

이 외에도 박시연, 김재화, 지수 등이 함께 출연한다.

2일 밤 8시30분 첫 방송된다.

/김민근기자



##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사격대회 2연패 달성

임실군청 사격팀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16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박정희, 백정순, 김수연, 김영은 선수로 구성된 임실군청 사격팀은 예선에서 고른 활약에 힘입어 BK기업은행(1150점)과 인천남구청(1142점)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며 1,150점으로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임실군청 염윤섭 감독은 "후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준 심인 군수를 비롯한 임실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최강팀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체육회, 미드림스포츠 프로그램 공모선정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여학생의 운동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스포츠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잠재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스포츠 프로그램 '미드림스포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2천백여만원을 확보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 정읍, 김제시 등 3개 시·군에 6개교에 12명의 강사가 배치되어 300여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학교는 전주시에 우이중, 서전중, 완산중, 전라중과 김제시에 금성여중, 정읍시에 학산중학교가 선정되었다.

전북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미드림 스포츠프로그램은 여학생들이 손쉽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체육 소외계층 등을 찾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몰카 파문'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 사임... 합숙훈련 중단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워"

'몰카 파문' 속에 안종택(49)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안 감독이 사직서를 제출해 31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A씨가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08년 코치로 대표팀에 합류해 2012년부터 감독직을 맡아온 안 감독은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고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

안 감독은 31일 "선수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을 지어한다"며 "감독으로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대표팀 코치진이 선수들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감독은 "28일 선수촌에서 다시 모인 후 코치들에게 재차 확인했다. 코치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코치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코치 뿐 아니라 다른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확인했지만 다들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감독은 "빨리 사실이 밝혀져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영인들 모두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국가대표 감독직을 내려놨지만 수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감독이 사직하면서 경영대표팀은 당분간 진천선수촌 합숙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가진 대표팀은 28일 입촌해 훈련을 재개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개인훈련과 부상 등을 이유로 불참한데다 몰카 사건까지 터져 참가 인원이 더 줄었다.

안 감독도 사임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진천선수촌에 남아 훈련하던 선수 2명은 이날 오전까지 훈련하고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수영연맹은 새로운 연맹 집행부가 구성되면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채용하고 대표팀을 새로 꾸려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훈련은 빨라야 11월에나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하고, 10월에 전국체전도 있어 11월이 돼야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새로운 기준으로 대표 선수를 선발해 훈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전국 29개 K-스포츠클럽 교류축전 개최지로 전주시 최종 확정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29개 K-스포츠클럽 교류축전 개최지로 전주시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전국 29개 K-스포츠클럽 교류축전 개최지로 전주시가 확정돼 전북체육회와 전북스포츠클럽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K-스포츠클럽 교류축전은 국비 1억원과 도비 및 전주시비 각각 1천만원 등 1억2천원으로 예산이 확보돼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K-스포츠클럽 교류축전이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북의 스포츠클럽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결과이고 전북의 체육위상이 그 만큼 높아진 증거"라며 "모범적인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